

■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2. 임원회 : 다음 주일 오후에 분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를 활동 보고와 계획안을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임시연회 : 서울연회 임시연회가 오늘 오후4:30 꽃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4. 담임목사 동정 :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3일 미국 서부지역 평신도 지도자 하계수련회, Lake Tahoe Zephyr Point Conference Center/ 24~26일 버클리 열린교회/ 31~9월2일 휴스턴 기독교 교회연합회 집회, 텍사스 휴스턴 갈보리침례교회/ 3일 목회자 세미나)
5. 신앙실천 : 밤하늘이 맑습니다. 여름밤의 별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넓디넓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을 목상하십시오.

**교회학교 여름행사**

청년부 : 8월 17-19일 (용인 향린교회 수양관)  
 <피정 - 침묵의 기쁨, 고독의 평화>

아동부 : 8월 19-20일 (강화 베로니카네 집)

다음 주 설교 본문	미정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신진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신진식	하현철	김명하

8월	1부 영접위원	박명제	헌금위원	서미경
	2부 영접위원	이한림 정원석 박석희 고숙이 김현영 조항미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미영		

오늘 식당 봉사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정은선 김희숙 안성호 황현성		
다음주식당봉사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상미 송은진 최희정 최영민 박석희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설규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3주 】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 반주자
-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쾌청하게 하고,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어리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님의 것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라오스에서는 댐이 붕괴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다리가 붕괴하여,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친히 위로해 주십시오. 낙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한 세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시130:7,8 ..... 인도자
- ▲ 교 독 문 ..... 5. 시편 8편 ..... 다 함께
-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 광권희 장로
- 2부응답송 ..... 찬양대
- 2부찬양 ..... 379.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 다 함께
- ▲ 성경봉독 .....
  - I. 인도자
  - II. 안종일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
  - I. 나의 기도 ..... 마중물 찬양대
  - II. 영원히 찬양 드리세 ..... 청파 찬양대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대정 국지연 권미숙 김병대 김성우 박유경 김영란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지현 김지훈 김진혁 신다현 김충실 조아라 김혜라 김훈동 유경순  
박다니엘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변재민 이소혜 박재우 정충원 박지혜  
박창운 허정운 서미경 박명제 서해나 손규현 오보영 손숙경 신능수 신영옥  
심상숙 심해성 안미숙 안미순 안현숙 우경환 유지은 은종인 이경남 이근식  
신영신 이미휘 이순용 김진실 이순이 이현죽 임고은 전영린 김행자 조경자  
조미선 최형균 강경화 허신열 강금연 현진 황선옥

### 감사헌금

강세기 강혜린 고혜경 권정이 김도홍 이미혜 김반야 김성수 김재흥 최희영  
김태정 김향자 남윤경 노미영 맹수미 엄재웅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박지혜 박창운 허정운 심어온 심영란 우윤석 윤수진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이재애 이재삼 전정현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영숙 전길남 김경희 채일석  
소창완 오은미 (새 생명 주심) 정윤성 서효진 (아버지 장례) 무명8

### 생일감사헌금

김지은 정영선

###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영호 유성민 유선재 이완구 한양미 황현성 황규민 황규원

##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

- 문태준

내 어릴 적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몽뚝한 노각을 따서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였습니  
 다  
 누나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험령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을 걷어 안고 있을 때  
 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 )를 떠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셨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외할머니의 밭에 자라 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가 울렁출렁하며 마당을 지나 삽작을 나서 뒷  
 산으로 앞개울로 골목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석류꽃이 피어 있었고 뽕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때의 햇빛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외시곤 당신의 등뒤에 낫선 누군가가 알긋  
 게 우뚝 서 있기라도 했을 때처럼 소스라치시며  
 남세스러워라. 남세스러워라  
 당신이 원 시의 노래를 너른 치마에 주섬주섬 주워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와 누나와 석류꽃과 뽕꾸기와  
 햇빛과 내가 외할머니의 치마에 그만 함께 폭 싸였습니다

말 씬	.....	헤아릴 수 없는 신비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찬 양	.....	64. 기뻐하며 경배하세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신비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고통에 맞닥뜨릴 때마다 분노하고 좌절하였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못 생명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재흥 목사

■ 시 한 편 ■

문석이 형님

형님 형님/ 문석이 형님

40년을 그리도 보고 싶었던/ 형님 문석이 형님

1946년 봄이었지요/ 북간도 용드레 마을에서 작별한 것이

그때 형님 나이 서른하나/ 내 나이 스물여덟/ 한창 나이였지요

그해 여름 난 압록강 건너/ 38선 지나 서울로 왔구요

형님이 회령으로 나오셨다는 소식/ 들어 알고 있었습시다

형님은 그럭저럭 40년을 회령에 붙박여 사셨군요

내가 장돌뱅이처럼 떠도는 동안/ 그동안 나는 아들 셋에 딸 하나 낳고

손주 손녀 다섯이나 벌었답니다

형수님의 그 곱던 얼굴 얼마나 늙으셨을까

원석이 그 녀석이 벌써 작년에 환갑이었다구요

그때 훈춘에서 나왔던 노석의 아들과 함께 박은 사진을 받아 들고

난 숨이 멎는 것 같았습시다/ 형님 형님 문석이 형님

형님의 얼굴이 바로 분단 40년이군요/ 왜 사진기의 렌즈마저 외면하셨죠

사진기 렌즈라도 똑바로 들여다보았더라면

나하고 눈이라도 마주쳤을 텐데

...

기다린다는 게 무얼니까/ 40년이나 병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얼니까

벌떡 일어서 사진에서 걸어 나오시라구요

예전처럼 팔씨름이나 해보자구요

...

역사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나도 요새 슬슬 알게 되었습니다 ...

구들장이 들썩들썩 눈보라 휘몰아치는 밤

확관하게 아궁에 군불 지피고/ 먹을 것 못 먹을 것 죄다 쓸어 넣고

부글부글 찌개를 끓여 놓고/ 막걸리 잔을 돌리며 목이 터지게

선구자/ 두만강 푸른 물에/ 독립군/ 통일꾼

노래를 소리쳐 부르다 보면 어느새/ 영창이 흰히 밝아 오는 일...

...

이제야 통일이 무언지 알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도 그러고 보면/ 별로 대단할 게 없군요...

남쪽의 떨거지들 북쪽의 떨거지들이/ 술판을 벌이고 얼싸안고 뒹굴며

눈물로 무너지는 걸 형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님 형님 문석이 형님

곧 만나자구요

곧 만나자구요

곧 만나자구요